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최상의 고독

(『極上の孤獨』 翻譯論文)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박현우

2022년 2월

# 최상의 고독

(『極上の孤獨』 翻譯論文)

지도교수 반 노 신 지

박 현 우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박현우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원 \_\_\_\_\_ ⑩

위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2년 2월

## 역자서문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는 감정이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본서는 작가가 자유 등을 연상하며 고독에 대해 동경을 품는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본서에서 작가는 어릴 적부터 고독의 즐거움을 깨닫고 실존 인물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고독의 즐거움을 설명한다.

작가는 NHK 아나운서 출신으로 일본의 작가 겸 수필가다.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로 근무하다가 문필 활동에 들어갔다.

작가는 밤은 자신만의 시간임을 언급하며 그 시간만큼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은 책을 쓰면서 간접적으로 독자들과 소통한다면서 고독해도 표현 가능한 수단이 있다며 고독에 대한 대처 방법도 언급한다. 또한, 여러 저서를 집필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산장을 매입했고, 자연 속에서 고독을 즐기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독을 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겠다는 주장에서는 작가의 뚜렷한 소신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역자는 본서를 읽기 전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색에 잠기게 되었고 그동안 고독에 익숙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고독에 관련된 책을 찾던 중 2018년 일본 여행 때 제목에 끌려 샀던 본서를 읽게 되었다. 본서는 고독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해하는 사람과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만 즐겁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생각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책이다.

이 번역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곁에서 격려와 지원을 해준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021년 12월

박현우

## 국문초록

본고의 원본은 2018년 겐토샤(幻冬舎)에서 출간하였다.

본고는 총 5장으로 구성된 『極上の孤獨』의 머리말, 제1장, 제2장을 번역했다.

작가는 와세다(早稻田)대학교를 졸업한 뒤 NHK에 입사하여 아나운서가 되었다. 지금은 작가 겸 강연자로 활동 중이다.

머리말에서는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로 시작하며 작가의 경험담과 고독에 대한 작가의 의견,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서술한다. 이 사례들을 통해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독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장 왜 나는 고독을 즐기는가에서는 고독을 싫어하는 이유를 들며 작가의 실제 경험담과 근대 하이쿠 작가들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고독의 감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작가와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여러 사실을 알 수 있고 자신의 경험담도 회상하며 비교할 수 있다.

제2장 최상의 고독을 음미하라에서는 작가의 경험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주로 서술하며 다른 사람들은 고독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그리고 작가 자신이 고독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설명한다.

작가와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함과 동시에 앞으로 고독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목차

역자서문	
국문초록	
머리말.....	6
[제1장] 왜 나는 고독을 좋아하는가	
왜 누구나가 고독을 싫어하는가.....	8
코뿔소처럼 초연하게 살고 싶다.....	9
‘외로움’과 ‘고독’은 별개.....	11
‘기침해도 혼자’.....	13
집단 속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15
고독의 달인이 되기 위한 ‘혼자 연습장’.....	17
고독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18
스마트폰이 외로움을 조장한다.....	20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을 때는?.....	22
‘가족이 죽고 나서 혼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23
고독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24
[제2장] 최상의 고독을 음미하라	
어릴 때 항상 혼자였다.....	27
남에게 맞출 거면 고독을 택한다.....	28
혼자만의 시간에 인간을 관찰하며 세상을 알게 되다.....	30
그래서 혼자는 즐겁다.....	32
신칸센은 혼자서 타고 싶다.....	33
멋진 사람은 다 고독하다.....	35
화장실 효과.....	37
주부는 고독할까?.....	39

15년 동안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알게 된 점.....41

참고문헌

日本語抄録

## 머리말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에 따라 다양하지만 ‘외롭다’, ‘싫다’,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많은 것 같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고독’, ‘자유’, ‘때 짓지 않는다.’ 등을 연상하며 고독에 끌려 일종의 동경마저 품는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결핵에 걸렸는데 당시 특효약도 없었고 2년간 자택에서 영양을 섭취하며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와 놀지도 못하여 좋은 삶은 고독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독의 편안함을 알아 버렸다. 누군가 탓에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자신과 마주하여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최상의 시간이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공상에 빠진다. 지금 나는 그 연장선에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고독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는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가, 살아가는 방식이 저절로 나타난다.

고독만큼 사치스러운 즐거움은 없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도 있다. 때 짓지 않고, 빌붙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관찰한다. 그러면 안에서 품격이 묻어나온다. 그런 성숙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고독’이다.

요즘 ‘고독한 노인은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고독담당장관’이 신설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고독이 싫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남에게 맞추며 같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확실히 자신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어 수명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 누구나가 마지막은 혼자이다. 고독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은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으며 인생이 더욱 즐거워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독사는 불쌍하다.’, ‘가능하면 고독사는 피하고 싶다.’라고 듣기도 한다.



정말로 그럴까? 마지막이 남이 볼 때 고독사라고 해도 본인에게는 알차고 멋진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여배우 오하라 레이코(大原麗子)가 전형적인 예이다.

그녀 집의 드레스 룸에는 「고독한 새의 다섯 가지 조건」이라는 16세기 스페인의 시인 산 후안 데 라 크루스의 시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하나, 고독한 새는 높이 난다. 둘, 고독한 새는 동료로 원하지 않는다. 같은 부류마저 원하지 않는다. 셋, 고독한 새는 부리를 하늘로 향하게 한다. 넷, 고독한 새는 일정한 색을 가지지 않는다. 다섯, 고독한 새는 조용히 노래한다.

그중에서도 나는 다섯 번째가 끌린다. 고독을 아는 자만이 자신만의 인생을 알고 조용히 자신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시모주 아키코(下重曉子)

## 제1장 왜 나는 고독을 좋아하는가

### 왜 누구나가 고독을 싫어하는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제자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무엇에 의지하며 살면 좋을지, 제자들이 지침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했더니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의미는 “코뿔소 머리에 있는 굽은 하나의 뿔. 그 뿔처럼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자신의 갈 길을 정해라”.

각자가 자신만의 해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 된다.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식은 스스로 정해라.

엄격한 가르침이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코뿔소 중에서 인도코뿔소는 무리로 행동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행동하므로 ‘코뿔소 뿔’은 고독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원한은 인간관계에 기인한다고 보며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고뇌의 원인이 되므로 고뇌에서 멀어져 혼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상태는 외롭고 고독해서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은 결코 외롭지도 괴롭지도 않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 말도 걸어주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감을 느끼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 고독이다.

그러면 차라리 혼자가 되어보는 것이 좋다. 혼자 살면 오히려 뿌듯함이 들고 남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도시는 고독하다.

내가 졸업논문을 쓸 때 심취했던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의 시 「군중 속을 찾아 걷는다」라는 고독감이 넘친다.

도시에는 사람이나 물건투성이다. 그런데도 군중 속에서 혼자 걸을 때와 만원 전철을 탈 때 가장 고독을 느낀다.

현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강조되어 스마트폰 등의 기계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좋아요’를 누르고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싶지 않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고 싶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버둥 치고 있다.

사실 지금만큼 사람과 사람이 차단된 시대는 없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빠지거나 왕따가 된 상태에서는 인간은 외롭거나 고독을 느끼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을 원한다.

그 결과 배신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해서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친다.

불교에서는 고뇌의 원인이 되는 대인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고독과 마주하는 시간이야말로 소중하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등 본심을 알 수 있게 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다.

## **코뿔소처럼 초연하게 살고 싶다**

최근에는 코뿔소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밀렵 때문이지만 목적은 코뿔소의 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사냥 대상이 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자연에 있는 동물을 보려고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도 코뿔소를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내가 아프리카 사파리에 갔을 때는 1977년 가을이었다.

사반나는 건조하고 밤은 꽤 쌀쌀했다. 초원 안의 사막에 묵으면 밤에 짐승들의 포효가 들려왔다. 심바(사자)수컷을 선두로 석양을 향해 느긋이 걷는 가족의 모습도 보였다. 사냥감을 지켜보는 암컷 사자의 모습도 보았다.

그 가운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트리 탑 호텔에서 본 코뿔소였다.

트리 탑 호텔에서는 사람들이 나무 위 호텔에서 대기해서 깊은 밤 바로 아래 연못에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들을 창문으로 관찰한다.

야행성 동물은 물을 마시고 준비된 소금을 먹으러 온다.

사향고양이, 하이에나 등 계속 다른 동물이 나타났지만 내가 기다리는 동물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 하이에나 여러 마리서 즐거운 듯 물속에서 서로 장난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지만, 박력은 없었다.

이제 질러 침대에서 꾸벅꾸벅 졸았을 때였다. 베개 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졸린 눈을 비비며 창문 밑을 보았다.

베이지에 가까운 흰색의 코뿔소가 한 마리. 그 몸은 거칠고 늙름해 보였다. 머리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것은 두꺼운 뿔이었다. 왜 코뿔소 뿔은 하나뿐일까? 대부분 동물은 2개 있는데 말이다.

뿔을 잃고 보는데 또 울음소리가 들렸다. 또 한 마리의 코뿔소가 나타났다. 검정 빛갈이 바랜 회색 피부 때문인지 한층 더 사지의 늙름함이 두드러져 보였다.

두 마리의 코뿔소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어떻게 하는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니 한 마리가 투우처럼 발톱으로 흙을 치며 상대를 위협했다.

다른 한 마리도 멈추지 않고 다가왔다. 일촉즉발 두 마리의 울음소리는 극에 달했고 뿔을 들이받으며 싸우기 시작했다.

코뿔소는 고독한 생물이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되면 안 된다.

침범되면 의연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이기는지 확인하려면 아침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두 마리의 박력에 압도당해서인지 다른 동물들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일정을 생각하며 나는 자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침대 바로 아래에서 두 마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도피처는 없다. 이 호텔에 도착하기 위해 총을 든 현지 가이드의 경호를 받아 겨우 올라왔으니까.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서둘러서 밑을 보니 어젯

밤 일은 거짓말처럼 연못의 수면은 빛나고 동물의 모습은 물론 코뿔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식사하러 가보니 칠판에 어제 본 동물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흰 코뿔소 검은 코뿔소 각각 1마리’ 코뿔소를 보는 것은 드물다고 한다.

내가 봤던 두 마리의 코뿔소는 고독의 뿔을 들이받으며 계속 싸웠다.

누군가의 도움도 없다. 사반나에 사는 동물들의 생활은 혹독하다.

나는 다시 그들의 고독에 대해 생각하며 사람 세계에서 안일하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 ‘외로움’과 ‘고독’은 별개

최근 충격적인 사건은 자마(座間) 시 시라이시 다카히로(白石隆浩) 용의자가 일으킨 연쇄살인이다.

사건의 피상함은 제쳐놓고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터넷상의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였던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시라이시 용의자는 스스로 목매다는 사람이라고 하며 자살을 원하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같이 죽자고 유혹해서 자택인 아파트에서 살해했다. 살해하기 위해 다락이 있는 방을 찾아다니는 등의 용의 주도함을 보였다.

시라이시 용의자의 진술에서 내 흥미를 끈 것이 그의 트위터에 응한 여성이 ‘죽고 싶다’라고 썼지만 만나보면 정말로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점이다. 진짜로 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로워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을 뿐이다.

그 누구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는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시라이시 용의자의 악랄한 수법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외로워서 누구라도 좋다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한다. 그것이 자살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죽음과 고독을 분위기나 일시적인 감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이야기 상대가 없어서 외로워서 고독하다. 그렇게 안이하지는 않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고독이란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혼자 살아가겠다는 각오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지만, 고독은 자신을 냉철히 바라보게 한다.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결해주지 않겠냐고 남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다.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최근 인터넷상에서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은 사람.....

상대가 모르는 사람이면 불안하지 않을까? 만나보니 착해 보이는 사람이어서 친절히 이야기도 들어줘서 그 사실만으로 신뢰하게 된다. 너무 부주의하다. 나를 지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안이하게 경계 모드를 풀어버린다.

그렇게까지 코너에 몰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람의 말을 신뢰했을 것이다.

인터넷상의 소문을 신뢰하는 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회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보급된 지금 상황에서 인터넷을 금지할 수는 없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찾기 전까지는 죽은 상태와 다름없었다는 점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사람이 스마트폰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단이었을 것이다.

우리 세대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한 번 인터넷이 없는 생활을 해보면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사람과 유대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죽어’, ‘짜증나’와 같은 욕을 들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친구나 지인에게서 멀어지고 미움을 사서 이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이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외롭다는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잠시 기다려줬으면 한다. 그 누구도 몰라줘도 괜찮지 않은가. 혼자라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고독은 비참하다.’ 따위가 아니라 ‘고독은 비참하다.’라는 생각이야말로 문제이다.

‘고독’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사랑스럽지 아니한가?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아준다. 왜 그러한 발상을 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 ‘기침해도 혼자’

일본 하이쿠<sup>1)</sup>(俳句) 역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두 명의 자유율 하이쿠 시인이 있다. 5·7·5음절에 구애받지 않는 오기와라 세이센스이(荻原井泉水)의 뒤를 이어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한 두 명의 시인 다네다 산토카(種田山頭火)와 오자키 호사이(尾崎放哉)다.

나는 40년 동안 하이쿠를 즐기는 동안 이 2명의 하이쿠를 알게 됐다.

산토카는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으로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나 집이 몰락하며 어머니가 자살하고 주조업으로 집안을 일으키려 했으나 실패하여 방랑자가 되었다.

헤치고 들어가도 푸른 산  
뒷모습이 가을비에 젖어 가는가  
쇠 바리때 안에도 싸락눈

모두 나그네의 외로움이 나타난다. 그의 생가가 있던 다네다 주조 옛터를 방문했는데 무성히 풀이 자란 황폐한 곳에는 산토카라는 이름의 술 간판이 있었다.

그는 방랑 생활을 하면서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면, 숙박료 대신 종이에 하이쿠 한 구를 쓰고 떠났다.

이런 행동에는 아직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고향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

---

1) 역주. 5·7·5의 3구 17자로 된 일본 특유의 단시.

겨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는데 산토카는 구마모토(熊本) 절에서 수행하며 출가한 후에도 자주 돌아왔다.

임종을 맞이한 곳은 에히메(愛媛)현 마쓰야마(松山)에 있는 하이쿠 벗의 집이었다. 산토카의 구에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벗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인간미가 있었다.

돌봐주고 싶게 하는 산토카의 인간미가 우리에게 한없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한편 같은 시기의 하이쿠 시인인 오자키 호사이의 하이쿠에는 이러한 어리광은 없다.

기침해도 혼자

하루 종일 말 없이 나비 그림자만 비친다

가만히 쓸쓸한 그림자를 움직여본다

얼마나 고독하고 엄격한 시인가? 산토카에게 있던 감상은 없고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보였다.

호사이는 돗토리(鳥取)현 출신으로 제일고등학교, 도쿄(東京)제국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다. 장래가 유망했지만, 연애에 실패하고 술에 빠져 일을 그만둔 후 교토(京都)와 효고(兵庫)의 절에서 일하며 살다가 쇼도시마<sup>2)</sup>(小豆島)에서 사망했다.

호사이는 결핵에 걸려 말년에는 혼자 살며 상처받은 짐승처럼 일생을 마쳤다.

호사이의 구제받지 못한 고독은 높은 궁지와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엄격함으로 가득했다.

처음에 나는 산토카의 하이쿠에 끌렸지만 호사이를 알게 되면서 호사이의 투철한 고독을 좋아하게 됐다. 지금은 산토카의 하이쿠가 조금 밋밋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고독이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세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고독에는 달관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흥내는 못 낼 것 같지만, 정신만큼은 본받고 싶다고 생각하며 호사이의 하이쿠를 읊었다.

2) 역주.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앞쪽 세토나이카이에 있는 섬.



## 집단 속에서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 것은 어렵다

‘고독의 “고”라는 글자는 개성의 “개”라는 글자’라고 항상 말한다.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개성을 가질 수 없다. “개”가 성장하지 않는다. “개”의 성장은 “고”의 성장이다. “고”를 성장시킨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개”가 성장한다. “고”는 수단이고 “개”는 결과다.

“개”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성장한다. “개”를 성장시키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셀 수 없지만 “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남과 어울려 다닌다. 남의 흉내를 낸다. 외톨이가 된다는 사실이 두렵다.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눈 깜짝할 새에 ‘개’는 사라진다. 모처럼 성장시킨 ‘개’가 쉽게 사라진다.

남과 대화를 즐기고 남들과 똑같은 것이 좋다면 크게 들렸을 때는 확실히 즐겁지만, 나중에 혼자가 되면 갑자기 허무해진다. 잠전의 내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요전에 함께 일하는 스태프와 송년회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수성이 풍부해서 대화가 즐거웠지만 헤어지고 나서 차에 타니 나는 뭔가 안도감이 들었다.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듯 보여도 웬지 모르게 남들에게 맞추고 있었다. 송년회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무리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빨리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고독이란 완벽히 자유로운 것이다. 남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다. 나는 전율할 엄격함으로 가득 찬 그 순간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근 듯한 기분으로 슬슬 헤어지지 않으면 감기에 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함께 있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어울리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혼자 태연하게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린다. 남자인 경우에도 웃기려고 잇따라 화제를 꺼내는 사람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자 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경이 쓰인다.

연회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가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는 남자가 있다.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춘다. 젊은 시절부터 그러한 남자가 신경이 쓰였다.

‘고’로 돌아온 순간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인, 괴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개성이 있는 사람은 많은 적든 기인, 괴짜이다.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남자를 나는 ‘굴곡진 남자’라고 애정을 담아 부른다.

그러한 사람이 줄고 ‘좋아요’를 누르는 듯한 사람들만 늘어났다. 알기 쉽게 말하면 개성이 없어졌다.

여자의 경우는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조용히 있으면서 혼자만 빛을 발하는 듯한 여자가 있다. 앞에 나서지 않는 데도 존재감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개”를 알고 있다.

왜 존재감이 있느냐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절대 동화되지 않고 ‘나는 나’라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전해진다.

무심코 그쪽으로 눈을 돌리며 호감이 가게 된 나를 발견했다.

그러한 여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하는 점은 좋지만, 특하면 나대는 여성은 매력이 없다.

천천히 숙성된 와인처럼 시간을 들여 애지중지하며 만든 것이야말로 맛있다.

그러한 “고”의 시간이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시간을 늘려간다. 그러한 노력 없이는 결코 ‘개’는 성장하지 않고 매력을 가질 수 없다.

## 고독의 달인이 되기 위한 ‘혼자 연습장’

‘혼자 연습장’이란 글자 그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늘려나가는지에 관한 공부이다.

쉬운 일처럼 보여도 어렵다. 가족이 있다. 친구가 있다. 좀처럼 자기만의 시간

이 오지 않는다.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 언젠가 될지 알 수 없다. 스스로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주부인 경우는 아침에 남편이나 자녀가 집을 나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므로 TV와 라디오, 스마트폰을 끄고 15분 아니 10분이 라도 좋으니까 혼자서 자신과 마주하며 지내보자.

창밖을 본다. 샛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지고 있다. 눈 깜짝할 새 은행잎은 도로에 쌓였고 잎은 흩어지기도 하고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잎을 날리면서 돌계단을 내려온다.

은행나무 가지에 잎처럼 달라붙은 것은 새이다. 파란색이다. 대 여섯 마리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파란 야생 조는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키웠던 새 같지만 도망친 것일까? 조금 큰 크기에 둥글고 큰 머리는 틀림없이 잉꼬다. 도시에 서 도망친 새들이 야생화 되어 살고 있다.

이런 두서없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준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한다. 나에게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이다. TV를 봤다면 알 수 없었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한 시간이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럼 슬슬 장 보러 나갈 시간이다. 절대로 친구를 부르면 안 된다. 혼자서 외출하자.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가면 혼자인 쪽이 순조롭고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것들도 보이게 된다.

응? 겨울인데 꽃이 폈네.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겨울날에 계절을 잊은 꽃이 피는 현상을 ‘계절 잊은 꽃’이라고 한다. 하이쿠의 겨울 계어<sup>3)</sup>로 ‘제철 아닌 꽃’ 또는 ‘미친 꽃’이라고 한다. 집에 돌아오면 세시기<sup>4)</sup>를 봐보자. 여러 가지 예의 하이쿠가 있다. 그렇지. 5·7·5로 오늘 본 꽃을 읊어보자.

계절 잃은 꽃  
옛사랑을  
되새겨본다.

3) 역주. 계절을 상징하는 단어.

4) 역주. 계어(季語)를 모아 분류, 정리한 후 해설하거나 구(句)를 집대성한 것을 가리킨다.

위 구는 내가 지은 하이쿠지만 무엇이든 좋다. 눈으로 본 사실을 표현하면 또 새로운 즐거움을 알 수 있다. 혼자여서 할 수 있다. 친구랑 함께라면 다른 때처럼 소문이나 TV 방송 등 정보교환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눈으로 본 풍경과 꽃을 그려봐도 좋다. 평소 신경 쓰지 않았던 일에 눈을 돌려 표현함으로써 자신만이 가진 감성을 알게 된다.

나는 평소에는 혼자 놀기를 좋아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다. 사람이 아닌 개나 고양이어도 괜찮다. 혼자 먹는 저녁 시간을 좋아하지 않으니 의외로 나도 고독에 약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도 적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최근 남편이 없는 날에는 혼자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친구를 부르려는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서 장을 보고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시간은 의외로 즐겁다.

남편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역시 신경은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육조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고 혼자 식사하고 사색에 잠기는 시간. 이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맛을 보게 해주고 싶다.

## **고독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고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일본인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중시한다.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가치관 때문에 고독은 정적인 이미지인 경우가 많을지도 모른다.

학교에는 외톨이로 무리에 속하지 못하여 항상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아이가 반드시 있었다. 원인은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였다.

내가 그랬다. 학교 생활통지표에서 싫었던 부분은 성적이 아니라 ‘협조성이 없다’라고 쓰인 부분이다. 협조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주변에 잘 융화되지 못했었다. 몸이 약한 데다 여러 번 전학을 갔었기 때문에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몰랐었다.

하지만 즐겁게 노는 아이를 보는 자신이 싫은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과 거리 두는 것을 좋아했다. 외롭지는 않았고 그러한 자세가 멋있다고 생각했다.

고독이란 말을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서 가까운 친구였고 마음이 편했다.

내가 생각하는 고독의 이미지는 부정적이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항상 혼자 있는 사람을 보는 일도 즐거웠다.

초등학교 방과 후, 운동장에서 철봉에 기대 공을 차거나 뛰거나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똑같이 2층에서 교실 창에서 보는 아이가 있다. 결코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보고 있다. 친근감이 들었다. 이름을 몰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고 느꼈다.

그도 고독을 사랑하니까 결코 서로 가까워지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타입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은 혼자라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게 된 경우이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 부모나 교사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사람은 고독한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다.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여 스스로 살아가기를 각오한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선택된 존재의 황홀과 불안 이 두 가지 내게 있도다”

다자이 오사무(太宰治)가 프랑스의 시인 베를렌의 시를 인용한 말인데 고독을 아는 사람의 심경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혼자 있으면 황홀이 아닌 불안감만 생기고 누군가와 어울리면서 쉽게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황홀은 바꿔 말하면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독에서 벗어난 사람은 고독을 싫어한다. 고독한 사람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본다. 자신보다 그 사람을 밑으로 보며 안심한다.

일본인은 고독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고립, 혼밥, 고독사 등 혼자서 행동하는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한다. 고독사는 특히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특집 방송하며 동정과 눈물을 자아낸다. 일본에서는 다

다미<sup>5)</sup> 위에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많으며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일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독을 자부심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성숙한 것은 아닐지. 나 자신이 그 경지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

## 스마트폰이 외로움을 조장한다

“고독은 산에는 없고 길에 있다”

철학자 미키 기요시(三木清)의 『인생론 노트』에 나온 말이다.

고독을 원하며 산에 들어가는 것은 수행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깨달음의 경지를 얻기 위해 산속 깊이 헤치고 들어가 바위를 뚫듯이 거기서 수행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로지 부처를 원하고 신을 원하며 무아지경에 이른다. 마음은 충족되고 늑대 짖는 소리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길거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지나간다. 그중에서 누구와도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나는 혼자라는 격리된 듯한 기분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남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로움도 늘어난다.

친구와 SNS(라인)로 소통한다. 아주 쉽게 답장이 온다. 거기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할까?

잘될 때는 좋다. 애인이어도 친구여도 사이 좋게 이야기할 때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잘 되지만은 않는다. 답장이 기약 없이 오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진 것일까? 아프지는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든다.

나도 여러 소중한 친구와 SNS를 하지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그저

5) 역주.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통식 바닥재.

마음만 매우 괴롭다. 기다리는 일도 괴롭지만 몇 번이고 말하는 일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조금해지며 진정이 되지 않는다.

편리한 수단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의 마음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불안해진다.

답장이 오지 않을 때의 불안감. 답장이 왔을 때의 안도감.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나 자신이 휘둘리는 사실이 싫다.

둘이서 SNS를 할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룹 채팅을 할 때 등 혼자만 따돌림을 당하거나 ‘짜증나’라든가 ‘죽어’라고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별 의미가 없어도 정말로 견디지 못하고 자살 등의 수단을 선택하는 원인도 된다.

예전에는 자살의 원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 등 본인의 고민이 컸었지만, 현재는 대인관계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고작 인간이 생각해낸 기기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의 장애물이 되서는 안된다.

한 번 스마트폰에서 떨어져 보면 어떨까? 실제로 스마트폰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한 세상을 깨닫고 햇빛과 살랑이는 바람에 마음이 위로된다.

내가 심사위원을 맡은 어느 여행 에세이 공모전에 영국 케임브리지로 단기 유학을 하러 간 첫날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체험담을 쓴 학생이 있었다. 전화, 이메일 등의 수단 없이 처음부터 서툰 영어로 인간관계를 구축해나간 눈물겨움, 우수꽝스러움 등 하나하나가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됐다.

그는 유학 중 스마트폰 없이 혈혈단신으로 사람과 사귀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러한 경험들은 큰 재산이 되어 귀국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강인함이 몸에 뱃다. 당연히 그 체험담은 에세이 대상에 선정됐다.

## **고독으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을 때는?**

오랜만에 50년 지기 친구와 식사를 했다. 각자 대학을 졸업했고 방송국에 취직

한 후 나고야(名古屋)에서 만났다. 둘 다 아나운서로 나는 NHK, 친구는 민영방송, 동갑인 인연으로 때때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50년 남짓 각자의 인생을 살던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동생이 죽었어. 암이 전이돼서 결국 죽었어!”

나는 새하얀 한 송이 장미를 장미 전문점에서 골라 부의금과 함께 그녀의 집이 있는 메구로(目黒)구 히몬야(碑文谷) 아파트로 향했다.

예전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다. 앞에 공원이 있고 벚꽃길이 이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아직 그녀의 어머니는 건재하셨고 여동생은 유방암이 발견됐지만, 은행에서 비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여자 3명만 있는 집. 각자 자신의 방을 가졌고 식사할 때는 식탁에 모였다. 남동생 2명은 결혼하여 외국이나 먼 곳에 살았다. 나는 이러한 여자 3명만의 생활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이미 나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이가 좋은 가족이었다. 특히 언니와 여동생의 사이가 좋았다. 언니인 친구는 다소 기가 센 구석이 있었지만 나와는 정반대로 뭐든지 다 해주는 타입이었다. 여동생은 난치병과 싸우고 있었다. 게다가 암까지 겹쳐 여러 번 재발 후 항암 치료로 점점 몸이 쇠약해져 마지막에는 암 병동에서 외쳤던 ‘언니 살려줘!’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친구의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에는 여동생은 언니의 기분을 생각하여 절대로 마음 약한 말을 하지 않았다. 친구는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했지만, 여동생이 조금이라도 괴로워하지 않을 방법이 따로 있는 않았을까? 라며 후회돼서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이 서로 도와가며 살았는데 여동생이 눈앞에서 죽은 후 친구는 혼자 살게 되었다.

나는 위패에 합장하며 ‘언니를 지켜줘’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두 개의 방이 비어 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버스를 타고 메구로 역까지 같이 가는 동안 그토록 세련됐던 그녀는 눈에 띄지 않도록 수수하게 화장도 하지 않고 야위어서 걱정됐다. 만난 순간 하마터면 잘 못 알아볼 뻔했다.

그 후 때때로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을 들여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첫째 남동생이 죽었어”라는 전화가 왔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



우울증에 걸렸어!”라는 말에 망설일 틈도 없이 급히 약속을 잡았다.

흔히 나쁜 일은 연달아 반복된다고 하는데 두 명의 동생들을 잃고 혼자가 된 외로움, 얼마나 고독감이 클까? 라고 식사를 하면서도 나는 말을 골라 말하게 됐다.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과 남동생이 떠올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좀 더 장수했을지도”라고 후회하게 된다고 한다.

있는 일에 집중하며 눈앞의 일을 소중히 하자고 말해도 허무할 뿐이다. 시간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 **‘가족이 죽고 나서 혼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친구는 몇 번 결혼할 기회가 있었으나 매번 타이밍을 놓쳤다. 나는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그녀의 연애를 봐왔지만, 그녀가 이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은 변했거나 그녀의 마음을 상대방은 단순히 가볍게 받아들였다. 너무 잘해줘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 남자친구는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할 듯했지만, 추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망했다.

“나도 너처럼 무덤덤한 성격이면 좋았을 텐데.....”라고 그녀는 말했다. 나처럼 사소한 일까지 생각하지 않고 마이페이스여서 낙천적인 편이 확실히 좋은 점도 많지만 말이다.....

“너에게도 좀 더 낙천적인 재능이 필요하네”라고 말하며 우리 둘은 서로 웃었다.

필요 이상으로 걱정이 많은 성격도 문제다.

부부 둘이서 생활하는 지인 가운데 남편이 아직 건강한데 벌써 혼자 살게 될 때가 걱정된다는 사람이 있다.

“설거지할 때마다 생각이 들어. 항상 그릇을 두 개씩 씻는데 그릇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벌써 울먹이는 소리를 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하면 되잖아. 아직은 둘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편과 사별한 친구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릇 두 개를 꺼내게

돼”

라고 들었을 때는 그 괴로움이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은 건강한데 벌써 혼자 됐을 때를 상상하며 어떡하지? 라고 어두워지며 고민하는 것은 문제다.

무언가 집중할 일을 찾는 편이 좋다.

앞에서 언급한 두 동생을 잃은 친구는 60 가까이 돼서 발레를 시작했다. 지금은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 나도 48살부터 60세까지 발레를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리듬을 타며 바 레슨과 플로어에서 동작 등을 배우는 동안은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른다. 연 1회 있는 발표회 의상을 입고 속눈썹을 붙이면 마음도 소녀처럼 들뜬다.

친구도 클래스에서 최고령임에도 발레에 푹 빠져 주 1회 레슨 때만큼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한 법이다. 나도 남편이 작년 두 번이나 열이 나서 입원했을 때를 계기로 그의 체력이 떨어진 모습을 나의 눈으로 직접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다.

고독을 상상하는 일은 괴롭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사람은 각오한다. 완전히 고독에 잠기면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몸과 마음에 제일이다.

## 고독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뭔가를 정할 때 누군가에게 상담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 상담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상담한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정하는 일이 무섭다. 왜냐면 스스로 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정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이 된다.

무턱대고 상담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의 성별을 보면 주로 여성들이 많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상담하는 일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중요한 일은

남에게 상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최종적으로 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니까 우선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굳힌다. 그 후 남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누구나가 그럴 것이다.

남에게 상담해도 이미 내 생각은 굳혀진 상태고 마지막 한 방을 원해서 남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내 생각이 무엇이나면 고독한 가운데 결단을 해야 하는 점이다.

남의 의견을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고독한 가운데 이것저것 고민하며 생각한 끝에 겨우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한 시간을 축적함으로써 인간은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고독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성장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대인관계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며 지내는 일 이외에도 전화, 이메일, 라인을 비롯한 SNS 등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여러 수단으로 남과 소통하며 도리어 고독을 느끼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친구가 많은 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그러나 친구와 지인은 적은 편이 낫다. 그 대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는 점이 중요하다.

나는 초등학교 때 1명, 중학교 때 1명, 고등학교 때 1명, 대학에서 1명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룹 활동은 좋아하지 않아서 다수로 행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다.

대인관계는 어디까지나 1대1이다. 그 점이 철칙이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을 열 수 없다. 나는 지금도 소위 '잡담'을 잘 못 해서 사람들 사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혼자서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난다.

언제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외로워서 견딜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 못 들어가면 고독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 감정은 '외롭다'라는 감정일 뿐이고 '고독'이라는 고상한 감정도 아니다.

웃기게도 고독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억제하고 남에게 맞추면 오히려 고독감은 증가할 뿐이다.

고독을 음미하며 자신의 속마음과 마주하고 생각해야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항상 남과 무리를 짓고 있어서는 성장할 리도 없고 피상적으로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 제2장 최상의 고독을 음미하라

### 어릴 때 항상 혼자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항상 혼자였다. 결핵에 걸려 초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 까지 2년 동안 집의 방 한 칸에서 요양했다. 폐문 림프절염 초기 증상이었기 때문에 진료 시설에는 가지 않았으나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섭취하며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전쟁이 악화하자 도쿄와 오사카(大阪) 등 대도시는 대공습에 직면했다. 공습경보가 울리며 방공호에 피난 가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지방으로 이주하는 신세가 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오사카 야오(八尾)에 있는 육군 다이쇼(大正) 비행장 소속이었기 때문에 나라(奈良)현 시기(信貴) 산 정상에 있는 오래된 여관을 운영하는 친척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

연못과 광대한 잔디 정원이 있었고 본관과 따로 떨어진 별채가 있었다. 방에서 침대 대신 탁구대에 이불을 깔고 안정을 취했던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미열은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소우주를 구석구석 바라보며 흥미 있는 일들을 찾아냈다.

때로는 천장 나무무늬는 괴물이 되어 나를 공격하여 뭉개 버릴 듯 다가왔다. 비가 오는 날에는 습기를 머금고 색이 짙어지며 여러 모습으로 변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지루하지는 않았다. 특히 흥미를 끈 대상은 거미줄이었다. 복도 끝과 칸막이 위에서 칙칙한 색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 순식간에 엉덩이에서 내뿜은 흰 줄로 멋진 집을 완성하였다.

그 기술에 감탄하며 홀린 상태로 봤는데 거의 다 완성될 무렵에 갑자기 자취를 감춰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니 거미는 줄 끝에 웅크리고 앉아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줄이 미세하게 흔들린 순간 어디선가 거미의 모습이 드러나며 먹이에 확 달려들었다. 거미의 재빠른 모습에 나는 감탄했다. 기다렸던 시간에 비

하면 순식간에 생긴 일이었다.

나에게 거미는 더할 나위 없는 친근한 존재가 됐다. 동시에 거미를 보며 기다림의 소중함을 배웠다. 목표를 정한 후 눈길을 돌리지 않고 끌어당겨 먹이가 줄에 걸리면 올라왔다. 결단과 동작이 빨랐다.

거미에게 배운 자세는 나에게 큰 영향을 줬다. 먼저 행동하지 않고 노린 상대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덮쳤다. 이 방법은 거의 실패하지 않았다. 먼저 움직이면 잘 안 됐다.

처마 끝 거미집에서 빗방울이 빛나는 아름다움은 비할 바가 없다. 일본에서는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나 유럽에서 거미는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 소녀가 거미줄 모양의 레이스를 떠서 만드는 일이 습관인 파라과이 근교의 마을도 있다.

나는 얼마나 무료함을 거미에게 위로받았는지 모른다.

초등학교 2, 3학년이라는 시기는 한창 놀고 싶을 때이다. 그런데 나는 또래 친구가 없었고 주변에는 의사를 비롯한 어른들뿐이었다. 또 우리와 같이 이사 온 아버지 소유의 소설과 화집, 아버지가 그린 그림뿐이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됐지만 원래 화가가 꿈이었고 집에 오면 항상 유화를 그렸었다.

옆방에 가서 엄마의 눈을 피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나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등 한 권씩 가지고 나와 읽지 못하면서 한 페이지씩 넘겼다.

남들 눈에는 내가 외롭게 보였겠지만 나는 혼자 있으면서 지루했던 적이 없었다. 마음껏 공상하는 데 바빴기 때문이었다.

매일 나의 의무는 아침, 점심, 3시, 밤에 4번 열을 채서 그래프를 만드는 일이었다. 독서에 몰두한 날은 다른 날보다 열이 올라 엄마에게 혼났기 때문에 이불 밑으로 허둥지둥 책을 숨겨야 했다. 이사한 집에서 고독했던 2년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남에게 맞출 거면 고독을 택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 집이 자주 전근을 잦기 때문이다. 아버지

가 직업군인이었던 탓에 2, 3년마다 주소가 바뀌었다.

아버지가 자란 조부모의 집은 도쿄에 있었지만 나는 도쿄에 살았던 적은 없었고 대학에 다녔을 때 살았던 경험이 전부로 우쓰노미야(宇都宮)에서 태어난 후센다이(仙台), 지바(千葉), 오미야(大宮), 오사카 말하자면 방랑자였다.

적응하면 유치원도 학교도 옮겨야 했고 헤어지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과 친하지 않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렇게 거리를 두는 버릇이 몸에 밴 탓인지 나는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해서도 남과 사귀기가 어려웠다.

NHK를 거쳐 민방 모닝 쇼 ‘오시마 나기사(大島渚)의 여학교’라는 코너에 고정 멤버로 출연했을 때 나의 별명은 ‘전학생’이었다. 멤버는 세토우지 자쿠초(瀬戸内寂聴), 미야오 도미코(宮尾登美子), 사와치 히사에(澤地久枝) 등 쟁쟁한 멤버로 나는 제일 젊었지만 다들 사이가 좋았고 별명을 붙이며 놀 때 멤버 중 한 명인 오자와 료코(小澤遼子) 씨가 나보고 ‘전학생’이라고 해서 놀랐다.

사회인이 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웬지 서먹서먹하여 어색해하고 부끄럼을 타며 남과 서먹서먹한 사실을 눈치챘을까?

그런 탓인지 나는 왕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생 때 같은 반에 재일한국인인 여학생이 있었다. 어찌 된 연유인지 나를 눈엣가시로 삼아 등하교 때 그 아이가 친구와 같이 기다리고 있어서 무서웠다.

나는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표적이 됐을까?

어머니는 내가 걱정돼서 집 근처 남자아이들에게 부탁하여 등하교 때 같이 가 달라고 한 것이 그 아이에게는 거슬렸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무서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몰랐다. 다른 반이 되고 나서도 중학생이 되어 열차로 통학하면 서도 표적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아이가 집까지 들이닥쳤을 때 어머니는 결심하여 왜 괴롭히는지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

그제야 알았다. 원인은 내가 아닌 아버지에게 있었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으로 장교 주택에 살며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징용 때문에 강제

로 일본에 오게 됐다. 그러한 원망이 종전 후 분출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방책은 그 아이의 가족에게 굴욕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가 엄마와 이야기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어졌다.

나는 전학생이었고 결핵에 걸렸던 탓에 체육 시간에는 견학만 가능했으나 공부만큼은 잘했다. 나는 반장이었고 부반장은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비겁한 짓을 했다. 시험 점수를 채점할 때 가끔 선생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다. 수학 점수가 낮게 나와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도중에 지우개로 지운 후 다시 쓴 흔적을 발견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부반장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처음 나는 남자의 질투와 공포를 알게 됐다.

이후의 일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자신과 다른 존재는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신을 속이며 남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지에 없었다.

## **혼자만의 시간에 사람을 관찰하며 세상을 알게 되다**

혼자만의 시간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고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일상생활에서 잠시 돌이켜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찾아보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매일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까지 걸어본다. 전철이나 버스 그리고 차로 이동할 때는 혼자 있을 경우가 많다.

자가용을 모는 사람은 멧때리면 위험해지니까 신경을 쓰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가 많아서 나에게 차 안은 내 방이나 마찬가지로다.

목적지까지 차로 30분이나 1시간 걸린다면 그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멧하



니 바깥 경치를 볼 때도 있고 집에서 시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화장을 고친 적도 있다. 그날의 강연과 인터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생각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암기해야 할 사항도 있고 참고서류를 볼 때도 있다.

예전에는 책을 읽었으나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활자를 보니 속이 안 좋아졌다. 전혀 차멸미가 없던 나조차 그랬으니까 독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전차에 탈 때는 나는 되도록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한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을 상상하며 재미있었으나 최근에는 80% 정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서 재미없다. 다만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문자를 보내는 대상은 업무 상대거나 애인일까? 라고 생각하면 질리지 않는다.

가끔 독서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면 기쁘다. 남과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인다.

구석에 앉아 화장하는 여성은 남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을 쓰는 대상은 거울 속의 자신뿐이다. 특히 눈 화장할 때는 더욱 진지해진다. 눈썹과 아이러인을 그리고, 속눈썹까지 찰싹 붙이고..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데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누가 보는지 모르는데 저렇게 화장에 흠뻑 빠져 버린다. 만약 화장하는 과정을 남자친구가 본다면 백 년의 사랑도 식어 버릴 것이다.

아직 20대였을 때 오사카역에서 약속이 있었다. 오사카역으로 가는 도중에 남자 화장실 입구 옆의 거울 앞에서 약속한 상대가 거울을 보며 열심히 머리를 매만졌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소름이 끼쳤다. 나를 만나기 위해 머리를 매만진 행위가 뭔가 역겹게 느껴져 도망가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만나기는 했으나 이야기는 즐겁지 않았고 나는 머리를 매만졌던 진지한 눈빛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한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싫다. 여자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은 채 나의 앞자리에 앉았다. 유유히 여성이 가방을 열어 네모난 파우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립스틱 정도라면 괜찮은데 남자도 태연한 얼굴로 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들

지 않았을까? 좀 더 서로 눈치가 있었으면 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남편에게 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일찍 일어난다는 옛날 아내들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화장하는 모습을 보여도 아무렇지 않은 둔감함에 경의를 표한다. 남자 쪽에서도 백 년의 사랑도 식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모습이 요새 젊은 커플들의 현실일까?

전차에서 사람을 관찰하면 의외의 세상을 알게 되어 즐겁다.

### 그래서 혼자서 즐겁다

가장 독서가 잘되는 곳은 열차 안이다. 특히 신칸센(新幹線)으로 지방까지 갈 때다.

자주 가는 곳은 가루이자와(輕井澤)이다. 산장이 옛 가루이자와에 있기 때문인데 가루이자와까지 가는 시간은 어중간하다. 거의 한 시간이면 도착했기 때문에 신서(新書)<sup>6)</sup>나 문고본은 좀처럼 끝까지 못 읽는다. 깜빡 잠들어 버리면 목적지를 지나쳐서 실제로 다음 역인 사쿠다이(佐久平) 역까지 간 적이 두 번 있었다.

다카사키(高崎)에서 가루이자와까지는 대부분 터널이어서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

사쿠다이(佐久平)에서 헤매던 와중에 역 직원이 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 목적지를 지나치셨군요. 반대쪽 홈으로 가셔서 가루이자와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히 말해줬다. 나뿐만이 아니라 몇 명 더 그랬는지 익숙한 모습이었다. 나는 상행선 신칸센 홈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가루이자와에 갈 때는 잡지를 읽는다.

아니면 다른 승객을 봤다. 거기서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여름철 매주 금요일 점심 무렵 정해진 하행선 열차에 타면 그때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커플은 사오십 대의 콧수염을 기른 지방 회사의 사장처럼 보이는 남성과 그 비서나 아내로 추정되는 인형처럼 무표정에 하얀 얼굴을 한 여성이었다. 물론

6) 역주. 가로 103mm, 세로 182mm인 출판물의 판형(判型)의 하나.

관계일지도 모른다.

또는 같이 지방에 가는 에이전트 사장과 소속 텔런트처럼 보였다.

여성이 배려했지만 둘은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내가 가루이자와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 탔으니까 우에다(上田)나 나가노(長野) 근처까지 갔을까?

매번 정해진 같은 시간대의 그린카<sup>7)</sup>.

그들은 왜 금요일 낮 호쿠리쿠(北陸) 신칸센에 탔을까? 상상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이야기는 만들 수 있다.

항상 두 명인데 어느 날 여성 혼자만 탔다. 게다가 검은 캐리어까지 가지고 온 상태로..... 둘은 헤어졌을까? 아니면 남자를 뒤따라가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시작하면 끝이 없었다.

매주 금요일에 같은 열차에 탔고 눈에 띄었던 남녀. 상대방도 나를 의식했나 보다.

목례를 할 수도 없었고 나는 혼자 탄 여성에게 왜 오늘은 혼자인지 묻고 싶어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 신칸센은 혼자 타고 싶다

옆자리가 빌 때 나는 항상 기다린다.

그 상대는 옛날에 헤어진 나의 전 남자친구이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할만 할 연애였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만났고 그와는 인연이었다고 생각했다. 아 니나 다를까 방송국 일로 재회하게 되었고 그 후 10년간 나의 연인이었고 나도 그의 연인이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생활이 전혀 맞지 않았던 나는 그와 함께할 수 없었다.

결국 나의 실연이라는 형태로 끝났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며 그와 마주할 수 없었다.

결혼이라는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오로지 사랑에 빠졌었다.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

7) 역주. JR 등 열차 중 별도 요금을 받는 특별 차량.

이렇게 한심한 나는 애매하게 끝난 감정에 힘겨워하며 어느 순간부터 억제한 감정이 이제 와서 떠올라 가슴이 아프다.

다시 만나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나는 믿는다. 예를 들면 신칸센 안에서 우연히 나의 옆에 앉을지도 모른다. 외국으로 가는 공항버스에서 갈아탈 때 우연히 만날지도 모른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그러한 날이 찾아온다. 앞으로 2, 3년 안에는 반드시..... 너무 먼 미래가 되면 서로 수명이 다할 테고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괴롭다.

신칸센에 탈 때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본다. 외출할 때는 대부분 혼자이므로 옆 자리는 빈 상태다. 나는 서쪽으로 갈 때는 시나가와(品川)역에서 타기 때문에 자리 잡을 때는 항상 차 안을 둘러본다.

다음 역인 신 요코하마(新横浜)역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의 현주소가 그곳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은 나고야(名古屋)역이다..... 아쉽게도 빈자리인 채로 열차는 목적지인 교토역에 도착했다. 도착하고 나서도 두리번거린다. 다른 차량 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열차 안은 옛사랑을 되새기는 소중한 장소이다.

교토역에서 택시를 타 강연 장소인 교토국제회관으로 향했다. 가모가와(鴨川)를 따라 상사화들이 피어 있었다.

눈앞에서 아직도 타고 있는 상사화

라는 하이쿠를 지었다.

나에게 차 안에 있는 시간은 사색하는 시간이고 하이쿠를 짓는 시간이기도 하다.

40년 전부터 하이쿠를 좋아하여 동호회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이쿠를 짓고 있는데 열차 안에서 지은 하이쿠도 꽤 많았다. 혼자서 마음껏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신칸센에 타면 반드시 하는 일은 우선 입구에서 담요를 하나 가져온다. 그리고 좌석에 앉아 등받이를 뒤로 기울인다. 창밖이 잘 보이는 각도로 조절한다. 산과 전원을 보면 계절이 변해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차 안에서 지은 하이쿠로는 호쿠리쿠 신칸센에서는

잎갈나무가 속눈썹을 감으며 산이 잠든다

‘산이 잠든다’는 겨울의 계어다. 눈으로 뒤덮인 가루이자와의 잎갈나무는 바늘과 같은 황금색 잎이 진 후 그 가지는 새까만 일직선으로 뻗어 마치 속눈썹을 감은 모습처럼 보인다. 그 상태로 눈이 햇빛에 녹아 눈물이 된다.

여러 상념을 신고 열차는 달린다.

도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옛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다. 운이 안 좋게도 그때 나는 남편과 있었고 상대방도 아내로 보이는 여성과 있었다.

침묵이 흘렀고 참다못해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내시죠”.

라고 나는 대답했다. 대답하자마자 목적지에 도착했다. 모처럼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혼자였을 때야말로 드라마의 막이 열린다.

## 멋진 사람은 다 고독하다

내가 하이쿠에 눈뜨게 된 계기는 에이 로쿠스케(永六輔) 씨의 권유였다. 40년 쯤 전 늦봄의 어느 날 “지금 하이쿠회에 가는데 같이 안 갈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이쿠회는 오자와 쇼이치(小澤昭一), 와다 마코토(和田誠), 아쓰미 기요시(渥美清), 이로카와 다케히로(色川武大), 기시다 교코(岸田今日子) 등 쟁쟁한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야기 특집 구회』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잡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특집 하이쿠회’ 그때 나의 하이쿠가 최고점을 받아 완전히 때료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특집 하이쿠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돌아가신 사람도 많고 참가자도 줄고는 있지만 말이다.....

‘도쿄 버드나무 하이쿠회’에 때때로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계기도 에이 씨의 권유였다. 같은 소속사이기도 했고 가끔 놀 때도 있었으나 같이 일한 적은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민영방송 TV에서 같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에이 씨가 ‘그만둔다’라고 말하며 첫 회를 마지막으로 하차해 버렸다.

에이 씨는 여행의 달인으로도 알려졌으며 자주 지방에 갈 때나 열차 안이나 집에서 자주 만난 적이 있다.

나도 혼자였고 에이 씨도 물론 항상 혼자였다. 가볍게 인사를 하며 각자 갈 길을 간다. 그런 곳에서 기쁜 듯이 치대는 짓은 더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간단히 인사만 한다.

멋진 사람은 대부분 혼자다. 역시 신칸센에서 다테가와 단시(立川談志) 씨를 만났을 때였다.

단시 씨는 자리 앞 테이블이나 시트 위에 교정지를 펼쳐 원고를 교정하고 있었다. 나는 예전부터 안면을 튼 사이였기 때문에

“어머 힘드시겠네요.”

라고 하고 나의 자리로 돌아왔다.

단시 씨도 병에 걸리기 전에는 대부분 혼자였다. 제자나 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긴자(銀座) 단골 바인 ‘미야(美弥)’ 등에 있을 때였다. 멋진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일 때가 많다.

이즈(伊豆)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이즈’라는 행사 때 낭독을 부탁한 기키 기린(樹木希林) 씨도 혼자 나타났다.

내가 쓴 대본 내레이션을 부탁했을 때도 오자와 쇼이치(小澤昭一) 씨는 혼자였다. 어느 날 하이쿠 장소로 향하던 도중 공원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오자와 씨를 발견했다. 말을 걸기가 망설여졌다.

그 모습이 생전 마지막 모습으로 얼마 후 부고를 접했다.

에이 씨도 휠체어를 타고 나서부터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을 필요로 했지만 살던 친구(神宮) 앞 아파트에서 마지막까지 혼자였다.

케어 매니저가 자주 방문했지만, 밤에는 아마 혼자였을 것이다. 애처인 마사코 씨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대부분 혼자였고 남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했다.

에이 씨가 돌아가신 후 집에 분향하러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현관문을 열다 깜짝 놀랐다. 문 안쪽에 붙어 있던 한 장의 종이.

“문단속은 했나? 가스 밸브는 잠갔나? 수도는 잠갔나?”

그 외에 외출 때 해야 할 일들이 에이 씨의 글자로 새까맣게 쓰여 있었다.

그 글자를 보니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마지막까지 혼자 살려고 한 자세가 엿보였다.

에이 씨는 전국 각지에 많은 친구와 팬들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은 고독한 사람이었다”라고 마지막까지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했다.

어디를 가도 혼자였다. 라쿠고(落語)를 볼 때나 행사장에서도 불쑥 혼자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날 평소처럼 저세상으로 떠났다.

## 화장실 효과

사자에상(サザエさん)<sup>8)</sup> 시대의 좋았던 옛 풍경 중 하나로 아버지가 신문을 한 손에 들고 화장실에 틀어박힌 그림이 있다.

밖에서 일하고 온 아버지는 집에 있을 곳이 없다. 거실은 아이들이 점령했고 부엌은 아내가 있는 곳이었고, 다른 장소의 관리자도 아내였다.

서재라는 훌륭한 장소가 있는 집은 적었고 만약 있다고 해도 뭔가 다가가기 어려웠고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서재에 있었을 때는 발소리를 작게 하며 지나가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주택 사정이 나빠지고 나서는 그러한 장소도 없어져서 아이의 방이 있어도 부모의 방은 침실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개인’의 공간을 가지기

8) 역주. 만화가 하세가와 마치코(長谷川町子)가 1951년부터 1974년까지 연재한 4컷 신문 만화.

어렵게 됐다.

“단 6평이라도 내 방을 가졌으면 얼마나 기뻐는지”

지방에서 가족과 같이 사는 남자 지인의 말이다.

밤에는 방에 틀어박힌다. 그 시간에 느끼는 행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 여성 중에는 부엌 한구석에 놓인 책상과 의자, 책장 등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 사람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개인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나 같은 글쟁이는 방이 없으면 일할 수 없다. 아무리 더러워도 누구한테 잔소리 듣지 않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치를 부릴 수 없을 때는 자주 가는 깃사텐(喫茶店)이나 작은 공간에 가서 어디서든지 원고를 쓸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잡음도 거슬리지 않는다.

일할 때는 대부분 음악을 듣는다. 클래식, 재즈 등 되도록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듣는다.

지금도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를 들으면서 원고를 쓰고 있지만 전부 이탈리아어여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역시 제일 귀에 거슬리는 것이 멜로디는 일본어이다.

옛 일본 집에서 가장 고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화장실이었다. 그래서 조간신문을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틀어박혔던 일이 아버지들의 즐거움이였다.

그러한 마음은 나도 잘 안다. 신문이나 책을 읽기에는 화장실은 참으로 적합한 장소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민폐여도 본인은 매우 쾌적하다. 좀처럼 남에게 넘겨줄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확실히 화장실에서 읽는 활자는 머리에 잘 들어온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생각을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된다.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말들이 떠오른다.

나는 하이쿠 회에서 하이쿠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을 때 마감 10분 전에 화장실에 간다. 매달 열리는 장소는 예전에는 요정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여러 군데 있었고 남에게 방해가 안 된다.



어째서 5·7·5에 맞추지 못했던 말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정리되는지 그다음은 종이에 적을 뿐이다..... 이러한 식으로 나는 하이쿠 회에서 활동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정리한 하이쿠는 여러 번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

왜 화장실일까? 옛말에 뒷간이라는 말이 있다. 그곳에는 머리를 맑게 하는 요소가 숨어 있을까? 혼란이 진정되고 맑은 경지가 된다. 이런 현상을 나는 ‘화장실 효과’라고 부른다.

2018년 1월에도 하이쿠 회가 2번 있었다. 마감 10분 전에 항상 그랬듯이 화장실에 가서 둘 다 최고점을 받을 수 있었다.

### 주부는 고독할까?

2017년 하반기 아쿠타가와(芥川)상 수상자는 2명의 여성이며 1명은 와카타케 치사코(若竹千佐子) 씨로 63세의 주부였다.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sup>9)</sup>라는 제목을 봤을 때 “이 책은 반드시 수상한다”라고 생각했다.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시 「영결의 아침」의 한 구절이지만 독특하고 강한 사투리는 발군이었다.

와카타케 치사코 씨의 기자회견을 봤다. 침착한 말투를 듣자 호감이 생겼다.

와세다 대학 시절 동창생이자 소중한 친구인 구로다 나쓰코(黒田夏子)에 이어 사상 2번째 많은 나이로 수상했다. 나이는 상관없다.

74살의 주인공의 노년을 찾는 작품이다. 와카타케 씨는 이와테(岩手)현에서 태어나 일하는 여성이 되도록 키워졌고 한때 기간제 교사를 했던 경험이 전부로 결혼 후 상경했고 그 이후로 쪽 전업주부였다.

“주부는 고독합니다.”라는 말이 잊히지 않았다. 확실히 주부는 남편 내조나 육아가 끝나면 고독할 것이다. 아니, 아이와 남편이 있고 바쁘게 살아도 고독한지도 모른다.

할 일은 항상 있고 허무하게 시간은 지나가지만, 남에게 평가받을 일도 없고 아이 엄마들 모임 등 아이로 말미암은 인간관계 이외의 친구도 생기기 어렵다.

9) 역주. 원서 제목은 『おらおらでひとりいぐも』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격리되어 존재감이 없어진다.

그 결과 혼자 주방에서 술을 훌쩍 마시는 알코올 의존증이 되거나 중년이 되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다.

와카타케 씨도 그런 고독을 맛봤을 것이다.

“분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마음이었다.”

아이가 다 컸고 남편이 사망한 후 장남의 추천으로 아사히(朝日) 문화센터의 소설 강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도 쓰다가 만 소설과 본격적으로 마주할 각오를 굳혔다.

“일단 역할을 끝낸 여성이 마지막 시간에 느끼는 자유로움과 개운한 느낌, 할머니의 철학을 쓰고 싶었다.”라고 아사히신문의 ‘인물 동정’ 란에 쓰여 있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듯이 보여도 남에게 조종당할 때가 많다. 원래 가졌던 자신의 욕망을 찾는 것이 산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와카타케 씨는 주부인 입장에서 피하지 않고 고독과 마주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와카타케 씨는 글쓰기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찾아냈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깨달았다.

“주제를 정하는 데만 63년, 인생에 늦었다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와카타케 씨는 말했다.

친구인 구로타 나쓰코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만 했고 계속 소설을 써온 결과 드디어 수상했지만 와카타케 씨는 63년 동안 자신의 주제를 정하는 일을 주부를 하면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계속 의지를 다졌다.

이런 성과는 모두 고독을 바라보는 자세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

주부 일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제약을 받는 일이다. 남편, 자식, 부모 등 가족 그리고 사회의 제약을 받는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남들과 동화하는 쪽으로 도피하게 된다. 초대를 받으면 다른 아이 엄마와 식사,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만남, 집에서는 가족 뒤치다꺼리로 나날을 보내며 자신과 마주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남들의 이야기에만 신경이 쓰여 소문이나 아이, 남편 이야기만 하게

된다.

원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게 된다.

주부인 여성이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시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되도록 ‘나는’이라는 주어를 씌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찾았으면 좋겠다.

### 15년 동안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알게 된 점

약 15년 동안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몸을 단련하려 다닌다고 오해를 한다.

처음에는 가끔 가서 거품 목욕기에 몸을 푹 담그고 돌아오는 정도로 헬스클럽을 ‘목욕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모처럼 다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기구로 근육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기상 전과 취침 전에 스스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다. 48살부터 60살까지 클래식 발레를 했었고 마쓰야마 발레 학교 발표회에서 매년 고탄다(五反田) 유포트 무대에도 올랐다. 예전부터 몸이 유연해서 지금도 다리 찢기를 하며 몸을 바닥에 닿게 하는 일 정도는 간단히 할 수 있다.

헬스클럽은 집에서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히로오(廣尾)라는 장소 특성상 유명인들도 많아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 사람을 만났다.

나는 내가 먼저 말을 건 적은 없지만 같은 아파트의 주민 등 안면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거기서 의외였던 점이 있었다. 하루의 일과처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일찍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나를 헬스클럽에 소개해준 남에게 잘 베푸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나를 위해 예쁜 무늬의 수영복을 선물로 주거나 선배로서 여러 조언을 해줬다. 그는 거의 매일 과제처럼 헬스클럽에 다녔었고 그곳에서는 보스 같은 존재였다.

그랬던 그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아주머니는 암에 걸렸다고 한다. 평소의 그답게 병원에 잘 다니며 수술을 하였고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도 받았다.

그 후에도 그를 헬스클럽에서 봤지만 몇 년 후 전이가 발견되어 나는 갑작스러운 부고에 놀랐다.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며 성실히 생활했고 나 같은 게으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줬는데..... 장례식에 가서도 ‘왜?’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우연히 같은 헬스클럽에 다녔던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다. 마쓰야마 발레 학교도 같이 다녔다.

발레 학교 성인 클래스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우며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었다. 발표회 날에는 4시에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선물을 줬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타고난 천성이었을까?

스포츠 만능에 나보다 더 헬스클럽에 꼬박꼬박 다녔다.

내가 발레를 그만두고 나서 만나는 일이 줄었지만, 어느 날 헬스클럽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이 2명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건강에 신경을 쓰며 운동을 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찍 사망했다. 왜 그럴까? 나처럼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산다.

생각해보면 일찍 사망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과를 완수하며 매일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원래 건강하니까 몸에 자신이 있고 다소 무리하면 서까지 정해진 일을 한다.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된다.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쉬는 일도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일이나 운동도 지나치면 안 된다. 건강을 과신하면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몸과 마주하지 않으면 들리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나처럼 어릴 때부터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항상 들으며 예방하여 무리하지 않는다.

도리어 병과 잘 지내는 법을 익히며 장수하게 된다. 건강하고 운동을 과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단명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다. 어떤 일이든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미키 기요시(2014) 『인생론 노트』, 기파랑

와카타케 치사코(2018)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토마토출판사

## 日本語抄録

本稿の原書は2018年幻冬舎から出版した。

本稿は5章で構成されている『極上の孤独』のプロローグ、第1章、第2章を翻訳した。

作家は早稲田大学卒業後、NHKに入社し、アナウンサーになった。現在、作家・講演者として活躍している。

プロローグでは孤独をどのように受け止めるかという内容から始まり、作家の経験談と孤独に対する作家の意見、そして実際の事例について述べている。これらの事例により、これまで多くの人が考えていた孤独についてさらに深く考え、新たな方法でも考え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確認できる。

第1章では孤独が嫌いな理由を挙げて、作家の実際の経験談と近代俳人の作品から感じることができる孤独感について説明する。作家と他の人の経験談を通じて様々な事実を知ることができ、作家本人の経験談も回想しつつ比較することができる。

第2章では、作家の経験談より他の人の経験談を主に述べ、他の人は孤独な時に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か、そして作家自らが孤独な時に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かを説明している。

作家や他の人々の実際の経験談を通じて、日常生活に取り入れる方法とともに、今後の孤独への対応方法を提示する。